

## 초·중학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

우 희 정\* · 최 정 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Verbal abus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others

Woo, Hee-Jung\* · Choi, Jung-Mi\*\*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verbal abus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others. The subject were 659 adolescences and their mothers.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In the study, generally mother's parenting stress level and mother's verbal abuse level tent to be below the mean scores. Parenting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is significant difference to adolescent's sex/grade, but verbal abuse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sex/grade. And parenting stress related to temperament and learning expectation is significant difference to mother's education level. And as for correlating parenting stress to verbal abuse, the significance appeared in these factors.

주제어(Key Words) : 언어적 학대(Verbal Abus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 I. 서 론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써 부모에게는 양육 그 자체가 스트레스적인 사건일 수 있다(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더우기 급속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취업여성이 급증하고 가족형태 역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수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 역시 과거보다 더 높게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게 되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주요생활사건에 비해 사소한 스트레스이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자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가 가족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어 감에 따라 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Abidin(1992)은 부모역할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으며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Webster-Stratton(1988)은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역할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만성 질환이나 장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양육책임과 아동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김영미, 1990; 류정혁, 1990; 전순영, 1984).

또한 편모나 십대부모 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Wikie & Ames, 1986; Belsky & Rovine, 1990; Harriman, 1983; 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83; Umberson, 1989)과, 부모기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에 있는 대상자들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김희순, 1988; 이숙현, 1990; 한세영, 1996; 고성혜, 1994), 대부분이 아동기 이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다른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시대의 우리나라 입시풍조가 이 시기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지각과 명령, 비난, 처벌과 같은 양육행동과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며((Bierman &

Smoot, 1991; Dadds, 1987; Krech & Johnston, 1992; Patterson, 1982), 특별히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하였음이 보고되었다(Webster-Stratton, 1988; Whipple & Webster-Stratton, 1991).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tterson(198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자녀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행동은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받은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경향을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언어적 학대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저야기 어려운 유형이지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연진영, 1992; Claussen & Ctittenden, 1991; Kinard, 1979)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는 가정 이외에 학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언어적 학대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언어적 학대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요보호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증례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혜련, 1994; 연진영, 1992)가 어느 정도 수행되어왔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학대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실제 아동학대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Strus, 1980; Smith, 1984; Gelles, 1982; Faller, 1981; Janzen & Harris, 1980),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서소희, 1994),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어두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박해미, 1994), 자녀양육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학력위주의 사회풍조, 입시경쟁,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한 재정적, 정신적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기적으로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성과 학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두 변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받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리 가정에서 무심코 자행되는 언어적 학대와 의 관계를 밝혀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이나 양육상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음으로써 상처를 받는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둘째, 자녀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는 차이가 나는가?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는 차이가 나는가?

넷째, 양육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녀의 성과 학년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자녀의 성에 따라 이러한 기대와 양육태도가 달라짐을 보고하였다(Goldgerg, 1990; Madames, 1989; Horrman, 1977). 또한 Luster와 Okagaki(1993) 역시 자녀의 성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며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도 달라질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언어적 학대에 있어서의 성차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언어적 학대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에 관심을 가진 연구로써 Endsley와 그의 동료들(1979)은 학령 전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아들보다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표현과 칭찬을 많이 한다는 연구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수용적이며 덜 엄격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Fristod와 Karpowitz(1988)의 연구 및 어머니가 딸보다 아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혼을 내는 등의 힘에 의존한 훈육방식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Kuczynski(1984)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곽용, 1986; Rowe, 1981)들도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에 대해 우회정파 이숙(1994)은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수준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아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와 학년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사회의

병리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및 학력위주의 교육관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 전체에 높은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자녀의 진로문제(김명자, 1991; 김진숙, 1980; 옥선화, 1991; 이미정, 1994; 황정규 외, 1982)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 달라진 입시경향은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5, 6 학년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하도록 부모나 학생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업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보이는 관심과 이에 따른 긴장 및 압박감은 과거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로 이때 부모와 자녀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의 연령, 즉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날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과 어머니와의 기질적 조화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세영, 박성연, 1996; Buss & Ploman, 1984)한 연구들은 청소년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기에는 학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 2. 어머니의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을 탐색한 김기현과 조복희(2000)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보육만족도, 자녀의 기질, 결혼만족도, 완벽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부모 효능감, 배우자의 지지순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보고하였다. 즉 이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2%의 설명력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언어적 학대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포괄적인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학대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김광일과 고복자(1987)의 연구에서도 고학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보다도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Pelton(1978)에 의하면 학대하는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았는데 어머니의 65%, 아버지의 55.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특히 아동양육의 경험부족 즉 미숙한 부모, 아동발달단계를 포함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모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고학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보다도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주영희(198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정도는 일반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았고, Ory와 Earp(1981)는 학대받는 아동과 받지 않는 아동의 가정을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고하였다.

## 3.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elsky(1984)는 스트레스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 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Gelles(1973)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요한 아동학대의 변인으로 보았는데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가 학대와 관련되거나 학대하는 사건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상황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회적 상황의 최근 변화 중 나쁜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상황적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것이며, 부모의 실직은 위기를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혼, 별거로 인한 파충한 역할 등은 상황적인 스트레스로 아동학대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Faller, 1981).

또한 아동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빈곤을 들 수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아동학

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Gil, 1971 ; Gelles, 1980). 김광일, 고복자(1987)에 의하면 부모의 직업에서 보면 아버지가 실직한 경우와 부모의 직업이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노동인 경우가 학대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결국 하류계층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기통제에 필요한 심리기제를 약화시켜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 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된 입시경쟁이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사회적 신분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력 위주의 사회풍토가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적 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이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적 및 진학 또는 진로 및 취업문제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명자, 1991; 옥선화, 1991), 부모 자녀간의 대화에서도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진학문제가 중년기 부모의 가장 큰 관심으로 밝혀졌다(김진숙, 1980; 황정규 외, 1982).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심이 주로 자녀의 성과 진학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과 어머니 65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296명(44.9%), 여학생이 363명(55.1%)이며, 학년별로는 초등 5학년 147명(22.3%), 초등 6학년 161명(24.4%), 중 1학년 209명(31.7%), 중 2학년 142명(21.5%)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분포는 만 38세-40세가 237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 41세 이상(217명, 33.3%), 만 37세 이하(198명, 30.4%)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17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하(213명, 32.8%), 대졸이상(120명, 18.5%) 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문항수정과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사용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20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은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2, .70, .67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신영화(1986), 고성혜(1992), 연진영(1992)의 질문지 등을 참고하여 8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로서 그 내용은 아동이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순종하지 않을 경우,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유형으로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들에게 제시된 예제의 말들을 지난 일년동안 어머니로부터 들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여 언어적 학대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응답 범주는 일년에 '한번도 없었다(없다)', 드물게 있었다(1년에 2-3번), '가끔 있었다(1달에 2-3번)', '자주 있었다(1주일에 1-2번)'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92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 균(문항평균)	표준편차
양 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16.82 (2.10)	5.56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0.68 (2.30)	5.2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7.79 (2.60)	2.82
언 어 적 학 대		12.58 (1.57)	4.69

〈표 2〉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N=659)

변 수		자녀 성별	M	SD	t값
양 육 스 트 레 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남 자	16.58	5.00	0.96
		여 자	17.01	5.98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남 자	20.81	5.22	0.32
		여 자	20.57	5.22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남 자	8.27	2.82	15.67***
		여 자	7.40	2.76	
언어적 학대		남 자	12.88	4.62	2.04
		여 자	12.35	4.74	

\*\*\* p&lt;.001

### 3.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조사(2001년 9월 6일~9월 11일)에 앞서 예비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배부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659부의 자료를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t-test, 분산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점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대로 양육스트레스에 관해서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문항평균은 2.60,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2.30,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2.10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과정에서 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명자, 1991; 김진숙, 1980; 옥선화, 1991; 황정규 외, 1982). 이는 우리의 현 사회풍조를 잘 반영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언어적 학대의 문항평균은 1.57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자녀의 성, 학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표 2〉참조),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만이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녀의 성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학습기대와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 남아선호사상과 아직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고 때문에 딸보다 아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진로나 직업과 관련하여 기대가 더 크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들에게 갖는 이러한 기대

〈표 3〉 자녀의 학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N=659)

변 수		학 년	M	SD	t값
양 육 스 트 레 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초등학교	16.39	5.50	3.32
		중학교	17.19	5.5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초등학교	20.16	5.21	5.55*
		중학교	21.14	5.19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초등학교	7.42	2.86	9.56**
		중학교	8.10	2.75	
언 어 적 학 대		초등학교	12.30	4.68	2.04
		중학교	12.83	4.69	

\* p<.05, \*\*p<.01

〈표 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적 학대 (N=659)

변 수		어머니의 교육수준	M	F	D
양 육 스 트 레 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졸 이하	17.34	4.11*	A
		고졸	16.96		A
		대졸 이상	15.56		B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중졸 이하	21.16	1.78	
		고졸	20.43		
		대졸 이상	20.16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중졸 이하	8.41	9.64***	A
		고졸	7.62		B
		대졸 이상	7.08		B
언어적 학대		중졸 이하	12.85	3.51*	A
		고졸	12.80		A
		대졸 이상	11.56		B

\* p<.05, \*\*\* p<.001

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써 즉 대학입시,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한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콕(1986)과 Rowe (198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표 3〉에 제시한 바대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p<.05)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p<.01)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중학생인 경우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p<.05)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p<.0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그룹이 다른 그룹의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중졸이하의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표 5〉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상관관계

	1	2	3	4
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1.000			
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436**	1.000		
3.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427**	.419**	1.000	
4. 언어적 학대	.213**	.204**	.219**	1.000

\*\* p&lt;.01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 역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언어적 학대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 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광일·고복자, 1987; 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Ory & Earp, 1981; Pelton, 1978)과 일치한다.

#### 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219),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213),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204) 순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위주, 학업우선주의와 같은 우리의 현 실정이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양육시 언어적 학대로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질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조복희, 2000; Mash & Johnston, 1990; Webster-Stratton, 1990),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고 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질관련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띄고 있으며 자녀의 성과 학년,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두 변인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일반적 경향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순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적 학대 또한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수준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의 현 사회풍조를 잘 반영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자녀와의 관계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 양육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연령층이 부모-자녀간에 서로 어느 정도 적응이 이루어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자녀가 어릴수록 기질적인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양육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



므로 차후 자녀의 연령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 일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언어적 학대의 경우 가정에서의 언어적 학대가 은연중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였으나 중간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딱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측정도구나 방법에 의한 문제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01$ ). 이는 아들에게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 내에서 남아선호사상이나 성공에의 심리적 압박이 성에 따라 다르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 보여지며,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p < .05$ )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p < .01$ )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경우 모두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며 이러한 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중학생인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난 사료된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p < .05$ )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p < .001$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그룹이 다른 그룹의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중졸이하의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 역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p < .05$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언어적 학대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광일·고복자, 1987; 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Ory & Earp, 1981; Pelton, 1978)과 일치하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언어적 학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며(조병은 외, 1995),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이원영, 1983)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이러한 이유로 언어적 학대를 덜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219),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213),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204)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련성이 큰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자녀의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막론하고 고등학생 어머니 못지 않게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자녀의 학업과 관련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어머니들이 언어적 학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감소시키는 하나 방안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역시 언어적 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과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적 조화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한세영·박성연, 1996; Buss & Ploman, 1984)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와의 기질적 문제가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언어적 학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 연구가 발달 특성상 사춘기에 접어든 연령대의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와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문제 상황별로 개인적인 대처방안이 연구되고, 또한 적절한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제도적인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언어적 학대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보아야 하는 연구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 학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면이나 분위기, 부부간의 만족도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사회인구학적 측면의 변인과 심리적 측면의 변인들과의 관련 연구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무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직장일, 가사 그리고 자녀양육의 삼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양육으로 인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리라 예측 할 수 있으며, 비취업모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상의 문제로써 아동의 연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척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도구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처럼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변인만을 다루었으나 현대적 특성상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고, 언어적 폭력 역시 아버지에게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박사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곽 용(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김광일, 고복자.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1987, 66-81.
- 김기현, 조복희.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2000, 35-50.
- 김명자(1991). 중년기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진숙(1980).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출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비교. 이화여대석사논문.
- 김희순(1988).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 류정혁(1990).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

- 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
-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정환경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옥선화(1991).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미정(1994). 수험생가족의 디스트레스, 자원, 우울증과의 관계분석, 효성여대 석사논문.
-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전순영(1984). 신체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의 일상생활동작 의존도와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모와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대 석사논문.
- 한세영,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황정규 외(1982). 한국 청소년의 생활과 산업사회의 사회화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소*, 82(1).
-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 1990.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 Belsky, J.(1990).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Rovine, M.(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laussen, A.H. & Crittenden, P.M.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 Relations Among Typ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5, 1991, 5-18.
- Faller, K.C.(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New York: The Free press.
- Fristod, M. A., & Karpowitz, D. H.(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 665-666.
- Gelles, R.J.(1973).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 An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ormulation, *American Journal Orthopsychiatry*, 43(4), 611-621.
- Gelles, R.J.(1982). Violence in the famil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P. (1978). Development and ab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il, D.G.(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37-648.
- Goldberg, W.A.(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rlmer Quarterly*, 36, 531-556.
- Harriman, C.(1983). Personal and marital

- changes accompanying parenthood. *Family Relationship*, 32, 387-394.
- Janzen, C., & Harris, O.(1980). Family Treatment in social work practice, Itasca: Peacock Publishers, Inc.
- Kinard, E.M.(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82-100.
- Krech, K.H., & Johnston, C.(1992). The relationship of depressed moo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Levitt, M.J., Weber, R.A., & Clark, M.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Luster, T. & Okagaki, L.(1993).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Ory, M.G. & Earp, J.A.L.(1981). Child Maltreatment and the use of social services. *Public Health Reports*, 96(3).
- Patterson, G.R.(1982). Corecive family process. Eugene, OP: Costalia.
- Patterson, G.R.(1983). Stress :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Garmezy, & M.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235-264). New York: Mcgraw-Hill.
- Pelton, L. H.(1978). Child Abuse and Neglect and Neglect : The Myth of Classlessn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4).
- Rowe, D.C(1981).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03-208.
- Schaefer, E. S., &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R. Medinnus(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John Wiley & Sons, Inc.
- Simons, R.L., Beaman, J., Conger, R.D., & Chao, W.(198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Smith, S. L.(1984).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Social casework*(June), 337-346.
-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87.
-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99-1012.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
- Whipple, E.E. & Webster-Stratton, C.(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15, 279-291.
- Wilkie, C. F., & Ames, E.W.(1986). The relationship of infant crying to parental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45-550.